

보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간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에 관한 연구

김미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초록

최근 보건소는 전염병 관리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비중이 감소하고 노인보건, 장애인재활, 방문보건사업 등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사업들은 그 성격상 사회복지업무와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간 협력현황을 파악하고, 이들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사업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전국 44개 시군구의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복지관,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 정신보건담당자, 재가복지담당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N=295). 조사방법은 주로 우편설문조사였으며, 일부 이차문헌검색과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협력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3개월동안 가장 많이 접촉한 대상자의 문제로 상대전문인력과 협력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사무소 순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협력했을 경우 그 수준에 있어서도 정신보건센터가 가장 높았으며, 보건소가 가장 낮게 나타나 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다.

종속변수로 협력유무와 협력수준을, 독립변수로 대상자요인(취약성, 공급자-대상자관계), 공급자요인(전문성, 상호의존성인식, 상대전문직에대한인식), 기관요인(상호근접성, 자율

성, 평가와 보상, 교육), 지역요인(도시화, 보건복지자원량)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간 협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변수는 대상자의 취약성, 상호의존성에 대한 공급자의 인식, 상대전문직에 대한 공급자의 인식, 두 전문직간의 상호근접성의 4가지 변수였다. 상기한 변수만큼은 아니지만 상대전문직과 협력한 것이 기관내에서 얼마나 평가되고 보상되는가와 직무교육정도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문제로 협력을 했을 때,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는 상대전문직에 대한 공급자의 인식,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정도, 상대전문직과 협력한 것에 대한 기관내 평가 및 보상정도, 두 전문직간의 상호근접성의 4가지 변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간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상대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같은 팀이나 같은 기관내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이 보건·복지 협력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에서 개인별 직무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 모두 보건·복지 협력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 중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한 전략이다. 넷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간에 협력한 것이 기관내에서 개인 및 부서의 평가와 보상에 반영되어야 한다.